

임상실습 중 태움관찰 경험과 간호전문직관이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

최동원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The Effect of Bullying Observation Experi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Major Commitment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Dongwon Choi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Nursing, Incheon catholic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태움관찰경험과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두 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95명이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및 다중회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11.60, p=.000$), 태움관찰경험($\beta=-.13, t=-1.99, p=.048$), 간호전문직관($\beta=.20, t=2.99, p=.003$)과 학교만족도($\beta=.31, t=4.58, p=.000$)가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27.1%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이 향후 태움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전문직관과 전문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전공몰입, 태움, 간호전문직관,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bullying observation experi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major commitment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The survey was performed on 195 nursing students in two universitie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sed with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Study findings revealed that bullying observation experience($\beta=-.13, t=-1.99, p=.048$), nursing professionalism($\beta=.20, t=2.99, p=.003$) and school satisfaction($\beta=.31, t=4.58, p=.000$) about major commitment were significant predictive variables($F=11.60, p=.000$). This variables accounted for 27.1% of the variance in major commitment. The findings indicate the necessity of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nursing students'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to prevent future bullying in nursing practice.

Key Words : Major commitment, Bullying observa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practice, Nursing stud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cheon catholic university research grant in 2020.

*Corresponding Author : Dongwon Choi(dionia@iccu.ac.kr)

Received October 4, 2020

Revised November 1, 2020

Accepted December 20, 2020

Published December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에게 임상실습은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과정으로 자신이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1]. 임상실습 중에는 간호실무현장에서 간호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간호사의 역할을 학습하고 간호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가 된다[2].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에서 간호사로부터 무시, 불쾌함의 표출, 배려 없는 행동, 비꼬는 행동, 귀찮아하는 표정 등과 같은 무례한 행동을 경험하기도 한다[3]. 또한 간호사 간 괴롭힘과 폭력을 목격하기도 하며 이러한 간호사로부터의 무례함과 괴롭힘에 대한 관찰경험은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게 되고 간호사를 바람직한 역할모델로 인식하지 못하고, 간호사로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전공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학업에도 몰입할 수 없게 된다[4,5].

최근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즉 '태움'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태움이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병원 조직 내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의 교육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구술문화를 지칭한다[6]. 이러한 간호사 '태움'은 수직적 간호조직문화에서 발생하는 간호사 간의 괴롭힘이 감정이 실린 행동으로 나타나고, 개인과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가르치는 과정 중 발생하는 괴롭힘으로 정의되고 있다[7]. 태움은 사회적 기준에서 폭력성이 낮으나 괴롭힘이나 언어폭력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교적 공격성이 낮고 모호한 의도성으로 인하여 간과되어 왔다[8].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가해자나 피해자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호관계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해야 한다[8].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간호사의 행동을 태움이나 약자 괴롭힘으로 인지한 경우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본인도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로 생각하여 현실에 무력감을 느끼고, 이러한 경험은 전공에 대한 불확실성과 간호전문직관을 저하시킨다[4,10,11].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 약화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가운데 학업뿐 아니라 임상실습에서도 나타나며[9], 더욱이 이러한 불완전한 전문직관은 학업에 대한 집중과 취업 준비도에

영향을 미쳐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서 경험하는 소진과 이직의도를 증가시킨다[12,13]. 그러므로 임상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태움이나 폭력경험은 간호대학생의 소진을 유발하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 개인은 물론 대중으로 부터 간호의 가치에 대해 인정받는 중요한 개념을 의미하며, 전문직 간호사와 간호에 대한 관념, 신념, 이미지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14].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인 간호대학생들은 학습몰입도와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간호전문직관과 관련된 변수로 전공만족도, 리더십, 소진, 임상실습교육환경 등이 보고되었다[15,16]. 또한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면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과 재직의도가 향상되고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17]. 특히 간호대학생은 간호에 대해 전문직으로서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14]. 그러나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교육현장에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느끼거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도모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18].

전공몰입이란 자신의 전공에 대해 깊이 있게 빠져 있는 애착 상태로 전공몰입경험은 학습의 열망과 궁극증을 유발하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의 바탕 힘이 된다[19]. 즉 간호학에 몰입하게 되면 자신의 간호학에 대해 정확한 목표의식을 갖게 되며 간호사로서 근무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가 생길 것이고 이로 인한 긍정적인 학교생활과 졸업 후 취업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처럼 전공 몰입은 성취목표를 달성하려는 능력을 향상시키므로 전공에 몰입하지 못하면 결국 전문직관을 기반으로 한 간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공 몰입의 영향요인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태움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거나 측정도구 개발을 통한 조사연구거나 소진과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들[10,20-22]로 이루어져 있을 뿐 임상실습에서 간호사 간 태움을 관찰하는 간호대학생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임상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간호사 간 태움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언젠가 자신도 직면해야 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고 태움 관찰에서 오는 충격에 대한 대처를

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점이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 방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임상실습 중 간호전문직관 형성 정도가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함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간 태움관찰 경험 정도를 파악하고,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시행되었다.

1.2 연구목적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간호사 간 태움관찰과 전문직관 및 전공몰입의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움관찰경험과 전문직관 및 전공몰입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태움관찰경험과 전문직관 및 전공몰입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태움관찰경험과 전문직관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간 태움관찰경험과 전문직관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I시와 S시의 4년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3,4학년 간호대학생 195명을 비확률 편의표집하였다. 대상자는 1학기 이상의 실습을 마친 학생을 선정하였고, 1학기 이상의 임상실습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휴학 중인 학생은 태움관찰과 전문직관에 대한 경험회기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3 연구대상자

본 표본크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자 표본 수 산출방법인 G*Power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예측변수 4개,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효과크기 0.15를 고려했을 때, 최소 표본 수 85명이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누락 없이 성실

하게 응답한 195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4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자료수집은 2019년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연구목적, 설문지 및 동의서 작성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본 연구의 목적을 모르는 연구보조원이 시행하였으며 수거한 후 설문지를 무작위로 등록번호를 부여하였다. 각 연구대상자는 자가 보고식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였으며, 소요시간은 20분 정도이었다.

2.5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 선정 시, 수집된 내용을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자발적인 참여와 중단이 가능하며 개인정보의 비밀유지와 익명성 보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6 연구도구

2.6.1 태움관찰경험

간호사가 지각하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Lee와 Lee[23]가 개발한 Workplace Bullying in Nursing-Type Inventory (WPBN-TI)도구를 연구자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관찰을 통해 지각한 태움으로 수정·보완한 총 1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태움관찰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Lee와 Lee[23]가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5이었다.

2.6.2 간호전문직관

Yeun, Kwon 과 Ahn[24]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도구를 Lee[25]가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며, 총 26문항으로 측정 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Yeun 등[24]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값은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92 이었다.

2.6.3 전공몰입

전공 몰입은 Kim[26]이 간호대학생을 위해 개발한 척도를 Kim[27]이 전공 몰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설문문의 구성은 의욕, 전공의 관심 흥미, 전공에 대한 매력, 수업 참여도, 전공 과제에 대한 열의, 전공 자체에 대한 호기심, 전공 수업 참여 시 시간 흐름 인식으로 되어있다.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몰입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26]이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97이었고, Kim[27]은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90 이었다.

2.7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파악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움관찰, 전문직관 및 전공몰입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ANOVA를 사용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가 경험한 태움관찰, 전문직관 및 전공몰입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파악하였다.

• 태움관찰 경험, 전문직관 및 전공몰입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된 변수 외에 학교생활 관련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선별하였고, 명목척도나 서열척도는 더미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2.6세로 20세-23세가 155명(79.5%)이었고, 96.9%가 여학생이었다. 종교가 있는 학생은 43.1%이었고, 3학년이 62.6%, 4학년이 37.4%이었다. 임상실습기관경험은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실습한 경우가 38.5%, 요양병원을 경험한 경우는 1%이었다. 학교만족도는 73.8%가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였고,

Table 1. Differences in Bullying Observation Exper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Major Commitment by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195)

Characteristics		n(%) M±SD	Bullying Observation Exper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Major Commitment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Female	254(96.9)	3.33±0.99	-0.31 (.758)	3.95±0.44	1.17 (.244)	3.74±0.82	0.89 (.377)
	Male	6(3.1)	3.46±0.99		3.72±0.48		3.47±0.74	
		22.6±2.41						
Age (year)	20~21 ^a	75(38.5)	3.28±1.09	3.29* (.039) a/b	3.75±0.44	0.22 (.807)	3.62±0.66	4.98* (.008) a/b
	22~23 ^b	80(41.0)	3.67±0.91		3.71±0.50		3.28±0.83	
	≥24 ^c	40(20.5)	3.36±0.86		3.69±0.52		3.59±0.62	
Grade	3	122(62.6)	3.07±0.96	-8.25 (.000)	3.78±0.48	2.01 (.046)	3.56±0.67	1.97 (.050)
	4	73(37.4)	4.11±0.64		3.63±0.47		3.34±0.83	
Religion	Yes	84(43.1)	3.48±0.94	.25 (.803)	3.79±0.49	1.65 (.100)	3.45±0.83	-.42 (.674)
	No	111(56.9)	3.44±1.04		3.67±0.46		3.49±0.67	
Clinical institute level	≥Certified tertiary hospital ^a	75(38.5)	3.56±0.96	0.92 (.431)	3.70±0.53	5.11* (.002) c/d	3.51±0.70	5.51* (.001) a/d b/d c/d
	≥General hospital ^b	60(30.8)	3.31±0.96		3.64±0.46		3.38±0.69	
	≥Medium-sized hospital ^c	57(29.2)	3.50±1.01		3.87±0.38		3.58±0.77	
	≥nursing hospital ^d	2(1.0)	3.92±0.00		2.84±0.00		1.57±0.00	
School satisfaction	Satisfied ^a	48(24.6)	3.02±1.05	6.36* (.002) a/c, b/c	3.94±0.49	8.95* (.000) a/c, b/c	3.87±0.60	14.71* (.000) a/b/c
	Moderate ^b	119(61.0)	3.57±0.93		3.68±0.43		3.40±0.67	
	Unsatisfied ^c	25(12.8)	3.67±0.95		3.49±0.55		2.98±0.91	
Thought of Bullying	Serious	149(76.4)	3.67±1.10	17.89 (.000)	3.69±0.47	2.17 (.117)	3.43±0.74	1.28 (.281)
	Not-Serious	44(22.6)	2.78±0.93		3.81±0.51		3.61±0.74	
Bullying Observation	Yes	151(77.4)	3.61±0.81	3.12 (.003)	3.76±0.47	2.14 (.033)	3.52±0.76	1.64 (.073)
	No	43(22.1)	2.96±1.30		3.58±0.48		3.31±0.64	
Bully	Nurse	145(74.4)	3.60±0.81	3.66 (.004)	3.76±0.48	1.82 (.070)	3.49±0.76	0.64 (.525)
	Others & None	50(25.6)	3.03±1.29		3.62±0.46		3.42±0.69	

* Scheffe test

전공 만족도는 73.3%가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임상실습 중 태움을 목격한 경우가 77.4%이고, 간호사 선배에 의한 태움이 74.4%이었으며, 대상자의 77.4%가 태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다음 Table 1과 같다.

3.2 대상자 특성에 따른 태움관찰경험과 간호전문직관 및 전공몰입의 차이

태움관찰경험은 연령($F=3.29, p=.039$)과 학년($t=-8.25, p=.000$)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학교만족도가 낮은군이 높은군과 보통인 군에 비해 경험도가 높게 나타났다($F=6.36, p=.002$).

간호전문직관은 3학년이 4학년보다($t=2.01, p=.046$), 중소병원이상 실습군이 요양병원 실습 경험군보다($F=5.11, p=.002$), 학교만족도가 높은군과 보통인 군이 낮은군보다($F=8.95, p=.000$)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전공몰입정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F=4.98, p=.008$), 요양병원을 경험하지 않은 군이 경험한 군보다($F=5.51, p=.001$), 학교만족도가 높음에 따라($F=14.71, p=.000$)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했고 다음 Table 1과 같다.

3.3 태움관찰경험과 간호전문직관 및 전공몰입의 정도

대상자의 태움관찰경험은 5점 만점에 3.46점이었고, 전문직관은 평균 3.72점이었으며, 전공몰입은 3.48점이었고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Bullying Observation Exper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Major Commitment of Participants (N=195)

Variables	M±SD	Min~Max
Bullying Observation Experience	3.46±.99	1.0~5.0
Nursing Professionalism	3.72±.48	2.7~5.0
Major Commitment	3.48±.74	1.1~5.0

3.4 태움관찰경험과 간호전문직관 및 전공몰입 간의 상관관계

전공몰입은 태움관찰경험과 음의 상관관계($r=-.222, p=.002$)를, 간호전문직과 양의 상관관계($r=.347, p=.000$)를 보였고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N=195)

Variables	Major Commitment	Bullying Observation Experience
	r(p)	r(p)
Bullying Observation Experience	-.222(.002)	
Nursing Professionalism	.347(.000)	-.176(.014)

3.5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Durbin-Watson값이 1.466로 나타나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차한계(tolerance)는 .783~.939, 분산팽창요인(VIF)은 1.065~1.277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1.60, p=.000$), 태움관찰경험($\beta=-.13, t=-1.99, p=.048$), 간호전문직관($\beta=.20, t=2.99, p=.003$)과 학교만족도($\beta=.31, t=4.58, p=.000$), 요양병원실습경험($\beta=-.14, t=-2.17, p=.032$)이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7.1%이었고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Major Commitment (N=195)

Variables	Model		
	β	t	p
Clinical institute level* (\geq Certified tertiary hospital)	-.06	-.86	.389
Clinical institute level* (\geq Medium-sized hospital)	.01	.18	.856
Clinical institute level* (\geq Nursing hospital)	-.14	-2.17	.032
School satisfaction	.31	4.58	.000
Bullying Observation Experience	-.13	-1.99	.048
Nursing Professionalism	.20	2.99	.003
$R^2=.271, \text{Adj.}R^2=.248 (F=11.60, p=.000)$			

*dummy

4. 논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 중 간호사 간 태움을 목격한 경험과 간호전문직관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을 향상하기 위한 간호교육의 방향과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 대상자 195명 중 77.4%가 임상실습 중에 간호사 간 태움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77.4%가 간호조직 태움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한 태움의 가해자로서 74.4%가 간호사였고, 72.3%가 선배 간호사로부터의 태움을 관찰했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태움관찰 경험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46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 대상의 유사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도 태움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간호사는 40.9%에 달했다는 보고와 본 연구에서의 학생들의 높은 태움관찰 경험을 통해 태움 문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지 수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28].

간호대학생들의 태움관찰경험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임상실습경험이 많은 4학년에서 상대적으로 3학년에 비해 경험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태움관찰경험에 대한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임상실습 중 직접적인 무례함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1,4]에서 학년에 따라 경험한 무례함의 정도가 높았고, 실습만족도가 낮은 군에서 경험 정도가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태움관찰이 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형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태움관찰경험이 간호전문직관 및 전공몰입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태움, 즉 직장 내 괴롭힘이 위계지향 간호부 조직문화와, 과중한 업무량, 부정적인 환경 조건,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 및 업무 특성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던 선행연구[2,23]를 미루어봤을 때,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관찰한 간호사 간 태움은 결국 간호조직 문화의 부정적인 특성을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된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72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로 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29]의 3.60점보다 높았으나 3,4학년 대상의 Lee와 Ji[30]의 3.70점과는 유사하였고, Lee와 Kim[9]의 3.84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Kim[30]은 학생들이 받았을 교육의 질, 교육환경, 개인적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이 학

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병원의 수준, 학교만족도 및 태움관찰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나타나 Kim[29]의 추정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간호교육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가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을 긍정적으로 심어주는 데 있다고 한다면 간호전문직관이 간호대학생 시절 뿐 아니라 신규간호사를 거치면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사고체계라는 전제를 고려한다고 해도 선행연구 결과가 3점대에 고착되어 있는 상황이 다소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Kim[29]은 간호대학 교육에서의 간호전문직관 적정 수준에 대한 공론화와 측정도구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그의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 미치는 요인 중 실습교육환경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실습 중 태움관찰 경험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학생들이 경험한 실습병원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결과를 통해 물리적, 정서적 임상실습환경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전공몰입은 전공분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전공에 대한 애착과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의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전공몰입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48점으로 이는 Shin, Lee & Kim[31]의 3.69점보다 낮았고 Shin과 Park[32]의 3.04점보다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의 특성이나 환경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나 선행연구에서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3,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선행연구[31]의 대상자들은 92.9%가 중상위권 학생으로 이미 높은 전공몰입 상태의 학생으로 유추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두 연구에서의 대상자는 아직 전공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기 전의 저학년 학생이 포함된 점에서 차이의 원인을 유추할 수 있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전공몰입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임상실습기관 중 요양병원 실습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학교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전공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 전공 몰입의 수준이 높다고 한 Chin과 Jung[33]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의 경우, 임상실습기관의 수준과 임상실습 경험에서 오는 실습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전공에 대한 애착

과 몰입이 커질 수 있다는 것으로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에 대한 양적 비중보다 질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학의 특성상 임상실습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임상실습 교육환경이 임상실습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환경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켜 임상실습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33].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움관찰경험과 간호전문직관 및 학교만족도였다. 즉 대상자가 지각한 간호사 간의 태움 정도가 낮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일수록, 학교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몰입의 정도가 높았다. 간호사 간 태움을 관찰한 경험을 가진 간호대학생은 간호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전공에 대한 애착이 저하되어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와 같은 변수들 간 회귀모형을 연구한 유사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학습몰입의 유의한 예측변수라는 결과[33]와,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전공만족도라는 결과[34]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간호대학생들이 간호학에 만족할수록 간호전문직관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전공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전공만족과 학교만족은 전공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스스로에 대한 통제의식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향후 의료인으로서 간호전문직관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전공에 몰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임상실습 중 태움관찰경험은 진로에 대한 심리안정과 통제성을 저하시키고 이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쳐 간호전문직관과 더 나아가 전공몰입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실습에서 경험하는 간호사 간 태움이 미래 간호사로 일하게 될 현장에서도 마주칠 수 있고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임상에서 간호사로서의 직업선택과 간호사로 오래 근무하고자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1,5]. 그러므로 간호조직에서 이러한 태움에 대한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태움문제는 간호사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조기이직 등의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해결 노력을 촉구

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상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임상환경의 특성, 입사순서, 권력의 위계관계로 인해 참아야 하는 분위기로 인해 여전히 태움문제가 지속되고 있다[6]. 간호조직에서의 태움과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정도 및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와 관련한 영향 요인들에 대한 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과 제도가 포함된 중재적 방안 마련에 산학의 협력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하는 간호사 간 태움과 간호전문직관을 알아보고 전공몰입과의 관계를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대상자가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으로 전국의 간호대학생의 실습교육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추후연구에서 각기 다른 실습교육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실습 시 경험하는 태움 관찰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실습 중 태움의 목격 및 관찰 등 간접적인 경험의 측정이라는 제한점이 있어 병원 내 태움과 괴롭힘 경험을 직접 측정하여 간호대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의 태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향후 태움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전문직관과 전문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태움관찰경험과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은 임상실습 중 간호사 간 태움을 경험 한 경우에 낮고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인 경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학교만족도, 임상실습기관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은 병원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활동들을 배우면서 간호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간호사-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간호사 간 태움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후 간호사로서의 직업선택과 간호사의 이직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호사 간 태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호사의 태움

을 목적에 대한 충격이 전공몰입 저하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상담과 향후 태움의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전문직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Y. Hong, Y. Kim & H. Son. (2006). Effect of nurses' incivil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 coping on burnout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es*. 22(4), 323-331.
DOI : 10.11111/jkana.2016.22.4.323
- [2] J. Kang, Y. J. Jeong & K. R. Kong. (2018). Threats to identity: a grounded theory approach on student nurses' experience of incivility during clinical plac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8(1), 85-95.
DOI : 10.4040/jkan.2018.48.1.85
- [3] S. L. Kim & J. E. Lee. (2005).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1), 98-106.
DOI : 10.5977/jkasne.2014.20.4.606
- [4] L. Kim, J. Yoo & E. Y. Cheon. (2017). Relationship among incivility, burnout, coping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 316-324.
DOI : 10.5762/KAIS.2017.18.1.316
- [5] J. Curtis, I. Bowen & A. Reid. (2007). You have no credibility: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horizontal violenc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7(3), 156-163.
DOI : 10.1016/j.nepr.2006.06.002
- [6] Y. K. Lee. (2018. 2. 26). 35% turnover of nurses suffering from 'burns', 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22601071321080001>
- [7] S. Cheong. (2018). *A Ground Theory on Occurrence and Persistence of Tae-um among Nurses on the Nursing Unit Environment, Department of Nursing*.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8] L. M. Andersson & C. M. Pearson. (1999). Tit for tat? The spiraling effect of incivility in the workpla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The Academy of Management. 24(3), 452-471.
DOI : 10.5465/amr.1999.2202131
- [9] H. N. Lee & J. H. Kim. (2016). The influencing factors of ego-resilience and empowerment on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8), 292-300.
DOI : 10.5762/KAIS.2016.17.8.292
- [10] M. Anthony & J. Yastik. (2011).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with in civility in clinical educa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50(3), 140-144.
DOI : 10.3928/01484834-20110131-04
- [11] Y. Babenko-Mould & H. K. S. Laschinger. (2014). Effects of incivility in clinical practice settings on nursing student burnout.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11(1), 145-154.
DOI: 10.1515/ijnes-2014-0023
- [12] C. Gibbons. (2010). Stress, coping and burn-out in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7(10), 1299-1309.
DOI : 10.1016/j.ijnurstu.2010.02.015
- [13] A. Rudman, J. P. Gustavsson. (2012). Burnout during nursing education predicts lower occupational preparedness and future clinical performance: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9(8), 988-1001.
DOI : 10.1016/j.ijnurstu.2012.03.010
- [14] E. J. Yeun, Y. M. Kwon & O. H. Ahn.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35(6), 1091-1100
DOI : 10.4040/jkan.2005.35.6.1091.
- [15] G. M. Hampton & D. L. Hampton. (2004). Relationship of professionalism, rewards, market orientation and job satisfaction among medical professionals. The case of Certified Nurse-Midwives. *Journal Business Research*. 57(9), 1042-1053.
DOI :10.1016/s0148-2963(02)00356-9
- [16] K. Hallin & E. Danielson. (2008).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of their work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1(1), 62-70.
DOI : 10.1111/j.1365-2648.2007.04466.x
- [17] S. S. Han, M. H Kim & E. K. Yun. (2008).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4(1), 73-79.
DOI : 10.5977/jkasne.2008.14.1.073
- [18] H. H. Cho & N. H. Kim. (2014).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 image, and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 *Journal of Korean*

-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548-557.
DOI : 10.5977/jkasne.20.4.548
- [19] S. J. Lee. (2011). The Effect of flow on learning and self-efficacy on colleg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5(2), 235-253.
DOI : 10.5977/jkasne.2018.24.4.424
- [20] J. A. Hong. (2019).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incivility perceive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professional self concep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5), 167-183.
DOI : 10.22251/jlcci.2019.19.5.167
- [21] M. Anthony, J. Yastik, D. A. MacDonald & K. A. Marshall. (201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ool to measure incivility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30(1), 48-55.
DOI : 10.1016/j.profnurs. 2012.12.011
- [22] C. M. Clark. (2008). Faculty and student assessment of and experience with incivility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7(10), 458-465.
DOI : 10.3928/01484834-20081001-03
- [23] Y. Lee & M. Lee. (2014). Development and Validity of Workplace Bullying in Nursing-Type Inventory (WPBN-TI).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2), 209-218.
DOI : 10.4040/jkan.2014.44.2.209
- [24] E. J. Yeun, Y. M. Kwon & O. H. Ahn.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DOI: 10.4040/jkan.2005.35.6.1091
- [25] S. R. Lee. (2011).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students in nursing*.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26] H. J. Kim. (2007).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27] K. M. Kim. (2015). *Effects of determining factors for selecting tourism major on major satisfaction, major commitm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28] Y. J. Kim. (2018. 2. 20). Survey on the status of nurse's rights. Hankyoreh.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32942.html>
- [29] C. H. Kim & J. Y. Kim. (2019).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learning environment, self-leadership, and clinical practice belonging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ociety Nursing Education*, 25(1), 5-16.
DOI : 10.5977/jkasne.2019.25.1.5
- [30] E. K. Lee & E. J. Ji, (2016).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attitude toward nurse-physician collaboratio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3(2), 126-135.
DOI : 10.7739/jkafn.2016.23.2.126
- [31] S. H. Shin, J. W. Lee & C. T. Kim. (2020). The effect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on their engagement in the maj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7), 136-145.
DOI : 10.5762/KAIS.2020.21.7.136
- [32] H. J. Shin & H. J. Park. (2017). The effec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2), 643-664.
DOI : 10.22251/jlcci.2017.17.22.643
- [33] E. Y. Chin, C. H. Jung. (2020). The effect of mental well-being, professor trust, and learning flow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Health & Welfare*, 22(1), 151-176.
DOI : 10.23948/kshw.2020.03.22.1.151
- [34] J. H. Kong, E. Y. Jung & S. A. Ahn. (2017). A relationship among learning interest, major satisfaction, learning flow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8(2), 1-16.
DOI: 1-16. 10.22143/HSS21.8.2.1

최 동 원 (Dongwon Choi)

[정회원]



- 1999년 2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08년 2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0년 3월 ~ 2014년 2월 : 적십자 간호대학 조교수,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조교수
- 2014년 3월 ~ 현재: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간호교육, 노인간호학, 만성질환자 간호
- E-Mail: dionia@iccu.ac.kr